박원자의 母情佛心 28 수덕사 부주지 주경 스님



▶ 한줄 요약
수덕사 부주지 주경 스님의 출가는 단순하다.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공부하며 불교에 관심을 갖고, 졸업하자마자 출가 사문이 됐다.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어머니는 말했지만, 아들은 스님의 길을 묵묵히 갔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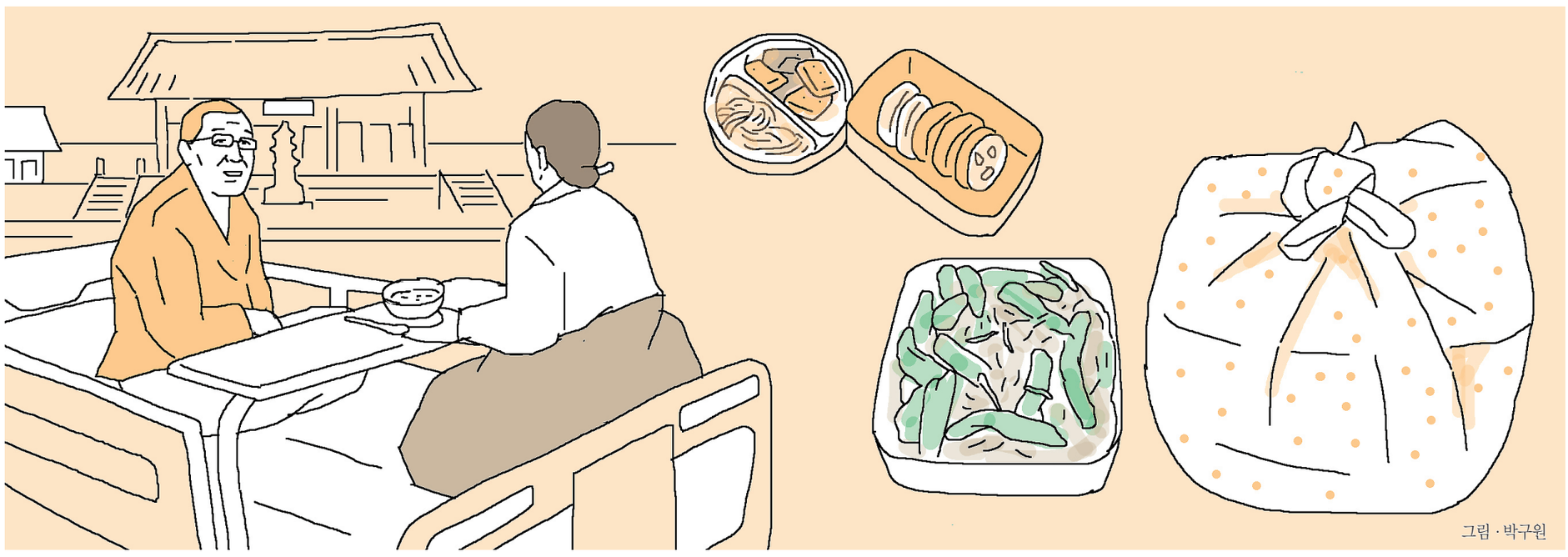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수덕사 부주지 주경 스님은 단순 명쾌한 분으로 통한다. 언제 무슨 일로 만나 뵈어도 '다음에 합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 자리에서 "좋아요, 해봅시다, 지금 하지요"가 전부다. 다음은 없는 것처럼 '지금 여기'를 전부로 사는 수행자다. 가끔 수행의 궁극은 단순 명쾌하게 살고자 함이 아닐까 생각해보곤 한다. 그래서 스님을 뵐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든다. 모습도 수덕사에 사셨던 경허 선사를 떠오르게 한다. 육척 장신에 가느스름한 눈매가 한국 선불교를 중흥시켰던 경허 선사와 꼭 닮았다. 경허 선사께서도 스님처럼 얘기하면서 자주 활짝 웃고 솔직 담백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이 단순 명쾌함의 뿌리는 어디에서 온 걸까.

"어떤 일을 두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기지 않은 일이나 가지 않을 길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감당하면 되고 할 수 없는 일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되니까요. 자기가 선택한 결정에 충실하면 삶에 만족할 수 있게 되죠. 본디 성격도 그러하지만 수행자로 살아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섬세하게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을 사는 수행자다운 답이었다. 출가도 단순했다.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집을 나와 절에서 사는 일이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의 일은 아니었다. 대학 졸업식을 마치고 2주 동안 집에서 지내며 짐정리를 했다. 입던 옷도 빨래해 정리했다. 그리고 부모님께 출가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가서 잘 살아라."

어머니 말씀 끝에 아버지께서 한 마디 하셨다.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다시 와라."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가겠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어머니를 뒤로 하고 돌아서는데 어머니의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어머니는 결연히 집을 나가는 아들을 보며 붙든다고 눌러앉을 자식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다섯 아들 중 셋째 아들이 고등학교에 가더니 제 작은 형을 따라 도선사 불교학생회에 들어갔다. 수험생이 되기 전까지 2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성실히 법회에 나갔다. 법회가 즐거운 듯했다. 돌아오는 데 보면 얼굴이 언제나 환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점점 내면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인 아들이었다.

고 3인 아들이 어느 날 툭 한마디 던졌다.

"엄마, 나 졸업하면 가출할 거예요. 혼자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요."

"뭐하고 살거니, 혼자?"

"절에 가거나 취직하거나 둘 중 선택할 건데 아직은 취직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아마도 저 애는 출가를 택할 것이다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공고를 졸업했는데도 동국대 불교학과에 들어가더니 불교학생회장, 대학생불교연합회 전국부회장, 서울 지부장 등을 맡으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불교 공부도 너무 재미있다고 했다. 남들은 재학 중에 군대에 가는데 학교에 다니는 지금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가겠다고 했다. 잠시 가출은 접어둔 것 같았지만 언젠가 절로 가출할 것 같은 느낌은 여전했다.

그러던 차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출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들 다섯 중 가장 똑똑하고 진취적인 자식이었다. 시장에서 가게를 하는 부모를 도와 일도 많이 했다. 무엇이든 알아서 잘하는 똑똑한 아들이 가버리면 어쩌나, 집안을 일으키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식의 진지한 선택에 손을 들어주었지만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미련을 접지 못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제가 다시 돌아올 거란 미련이 있으셨어요. 친구들도 제가 워낙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출가생활을 몇 년 정도 거쳐 가는 과정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저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3년에서 5년 정도 있다가 나갈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와서 살아보니 다른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불교의 어떤 것에 매료되셨어요?"

"고등학교 때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스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학식도 높고 매사 열정적이고 법문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하셨어요. 남자로서 가볼만 한 길이라는 생각을 했죠. 〈열반경〉을 읽어보라고 주셨는데, 부처님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황금빛 옷을 입고 멀리 앉아 있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피곤해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노스님으로 비춰졌어요. 보통의 출가수행자라는 느낌이 드니까 나도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 부분이 출가에 대한 가장 큰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먼 거리에 있어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동국대 불교대학서 수학한 아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출가
돌아올 것 믿었지만 '스님' 선택
암 발병한 50살 아들 스님 간호
"어머니 지켜보니 잘 살아야죠"

돌아오면 좋겠다던 어머니가 미련을 완전히 접은 것은 해인승가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였다. 수덕사로 출가한 아들에게 가끔 연락을 하면서 '한 3년 살았으니 나와도 되지 않느냐' 고 넌지시 물었다. 친척 중에도 5년 만에 나온 사람도 있다거나 셋째 며느리 얻고 싶은 희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머니에게 아들 스님은 출가 5년째 되던 해에 안부전화를 끊었다.

그랬더니 전국 사찰마다 전화를 해서 아들이 해인사 강원에 들어간 것을 알아내곤 다른 아들들과 함께 찾아왔다. 아들 스님은 가족들을 데리고 공양간으로 가서 밥 한 끼를 대접했다. 다행히 그날따라 두부조림에 표고버섯을 볶은 나물까지 반찬이 풍성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니, 어머니 왜 우세요?"

"아들을 대학까지 졸업시켜 출가시켜놨는데 멸치 대가리 하나 없이 이런 풀만 먹고 사는 것을 보고 엄마 속이 편하겠니?"

아들 스님이 내친김에 눈물을 보이는 어머니께 쐐기를 박았다.

"제게 오늘 이 반찬은 고기보다 더 좋은 반찬입니다. 이제 제게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안 하시면 앞으로 연락도 드리고 찾아도 뵙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출가 생활을 존중해주었고 가족 모두 신심이 두터워지는 데 일조하셨다. 출가하려면 호적을 파가지고 나가라던 아버지가 법당에 들어와 절을 하고 어른 스님들에게 인사를 드릴 만큼 신심이 깊어진 것도 어머니의 힘이었다.

30대 후반, 서산 부석사 주지를 할 때다. 아들이 주지를 하니 마음 놓고 며칠씩 묵다 가시곤 했다. 신도들이 주지 스님 어머니에게 깍듯이 대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런저런 말들을 전했던 모양이다. 어머니가 절 일에 간여하기 시작했다. 그냥 들어줄 아들 스님이 아니었다.

"신도로 오려면 절에 오시고 주지 어머니로 계시면서 잔소리하실 것 같으면 다른 절에 다니세요. 더 이상 절 일에 관여하시면 저 주지 내놓고 나가겠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뜻을 헤아리는 현명한 분이었다. 그 뒤론 다시 그런 일이 없었다. 절에 오면 마루에 걸레질을 하고 빗자루 들고 마당을 쓰는 일이 전부였다. 신도들이 '우리 스님이 바르게 살아주어서 너무 고맙다' 는 소리를 하면서 존경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 더 하심을 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

며느리 하나 얻지 못한 것 말고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수행자가 된 아들이 만족하다던 어머니였으나 10년 전, 아들 스님이 암수술을 받았을 때는 망연자실하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하냐면서 연일 눈물을 훔치셨다. 몸에 좋은 것들을 싸가지고 와서 먹였다. 자식이 아플 때 자식보다 더 마음이 아픈 존재가 어머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식을 위해 목숨을 열 개라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니 한창 나이의 아들이 병고를 만났으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을 것이다.

"그때 적어도 부모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죠. 몸이 아파도 이렇게 걱정이 태산인데 먼저 죽으면 부모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니 치료에 더 전념하게 되고, 치료되고 나서도 건강관리를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나이 쉰 살에 맞은 암의 발병은 출가인생에 새롭게 발심하는 큰 전환기가 됐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정리했다. 옷 몇 벌 남겨놓고 다 정리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물었다.

"스님, 왜 그렇게 다 치우십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까 잡다하게 쌓아놓았던 것 다 정리하고 새롭게 살려고 합니다."

짐 정리하는 아들 스님을 가만히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던 어머니는 구십이 가까운 지금도 일 년에 한두 번 아들 스님을 찾아와 건강을 챙겨주고 돌아가신다.

"부모님의 뜻을 어기고 출가했고,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신데 잘 살아야죠."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살아갈 힘이 되어주는 어머니의 존재는 승속이 따로 없는 것 같다.

단순 명쾌함으로 오늘은 사는 스님의 내일이 궁금하다. 〈작가〉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